

“숫대 앞에서 2022년 새해 소원을 비세요” 아름숫대갤러리 김숙경 작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안테나’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콘텐츠, 숫대. 장대 위에 앉아있는 새는 현재 해외에서 극찬을 받는 중이다. 그 숫대의 범용성을 넓히기 위해 여념 없는 김숙경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김은정(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김오늘



어제의 숫대...천지인을 연결하는 매개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땅에 기다란 숫대를 꽂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길운과 소망을 빌었다고 한다. 왜?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맥으로 통해 있다 믿었으니까.

새 모양의 조각을 기다란 나무 막대기에 달아서 마을 어귀에 꽂는 숫대는 우리나라 전통 조형물이다. 단순한 조형물 같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대단하다. 예전에는 의례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질병과 재앙 같은 액운을 막아주고, 농사 잘되고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고 하늘과 땅에 비는 동신제(洞神祭)를 지냈다. 동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숫대가 있는 마을 어귀였다.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회원이자 아름숫대갤러리의 대표작가인 김숙경 작가는 숫대를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희망의 매개체’로 정의한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면 숫대를 세워서 축하해줬다고 해요. 참 따뜻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팍팍해서 인지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대도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김숙경 작가는 숫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精)과 모두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상생(相生)의 문화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숫대...해외에서 뜨거운 반응

김 작가가 숫대와 인연을 맺게 된 건 18년 전이다.

“지인한테 숫대를 선물로 받았어요. 첫눈에 부드럽고 단아한 우리나라 멋이 담긴 숫대에 반했죠. 외형도 외형이지만, 숫대의 상징의미가 ‘상대가 잘되기를 바람’이라는 걸 알고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숫대에 빠져든 김 작가는 현재 성신여대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물론 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전통 숫대

의 문화적 활용이다.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북아시아 지역에 새를 캐릭터로 한 숫대가 존재했어요.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시조로 알려진 동이족이 새를 숭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전에서 출토된 보물 농경문 청동기(農耕文靑銅器)에는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 한켠에 두 마리의 새가 장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요. 맞아요, 숫대죠.”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나라 숫대를 소개했는데, 가는 나라마다 반응이 뜨거워서 행복하다는 김 작가. 하지만 짧은 한숨과 함께 안타까움을 쏟아낸다.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계승하는 것처럼 숫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 좋겠어요. 숫대는 청자, 백자 못지않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의 숫대...K-콘텐츠로 등극

일산동구 풍동과 북한산 자락에 있는 김 작가의 작업실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숫대를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4m에 달하는 숫대를 마을 어귀, 다시 말해 실외에 세웠다면 김 작가는 실내에 둘 수 있는 숫대를 만들고 있다. 선조들이 구현했던 부드럽고 단아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옷칠과 나전칠기를 가미해서 완성도 높은 예술미를 더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숫대의 현대 버전이다.

우리 민족의 상생 정신이 담긴 숫대를 알리기 위해 좀처럼 작업실에서 나가질 않는 김 작가. 최근에는 숫대의 범용성을 넓히기 위해 숫대와 의식주 속 생활용품 콜라보에 집중하고 있다.

“옷감에 숫대 캐릭터를 프린팅하면 옷, 가방, 운동화 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식탁에 오르는 컵, 텀블러, 그릇, 수저와 젓가락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죠. 테이블에 세워놓거나 벽에 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답니다. 조명으로 변신시켜도 멋있을 겁니다.”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을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물 숫대. 김 작가는 K-팝, K-드라마, K-패션, K-푸드에 이어 K-콘텐츠로 숫대가 떠오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을 하늘에 물었다고 해요. 장대 위에 앉아있는 새가 인간의 말을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말을 인간에게 전해준다고 믿었던 거죠.”

최근 들어 숫대 앞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숫대를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늘에 묻는 횡수가 늘고 있다는 김 작가. 그녀는 말한다. “선달 무렵에 숫대 앞에서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네 풍습이 있잖아요. 한류월드를 디자인 중인 고양시와 고양시민 여러분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에는 세계와 함께 더욱 반짝이길 바랍니다”라고 